

나주시, 남양유업 나주공장 계약직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

강인규 시장,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 연속 고용 방안 강구 당부

취업 역량 제고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공장 측과 간담회

나주시는 금천면 소재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 34명의 실직 위기와 관련해 최근 공장 측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20일 서호수 ㈜남양유업 나주공장장과 만난 자리에서 타 지역 공장으로 이설이 예정된 커피믹스 생산라인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과 근로자들의 연속 고용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해당 근로자들의 연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취업 역량 제고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 시장은 "타 제품 생산라인 구축 등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을 위해 공장 측과 협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며 "연속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내 업체 취업 알선,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

해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계약 기간 만료로 연속 고용이 안되면 신규 채용 시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사회,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커피믹스 생산설비 이전계획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34명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9년 적자전환에 따른 긴축경영과 나주공장 커피믹스 생산원가 상승 등 재산성 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 조치로 커피믹스 생산라인을 타 지역으로 이설을 결정했다"며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4명은 고용연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남양유업 나주공장 계약직 근로자 34명의 계약 종결 결정과 관련해 일부 지역 언론에서 남양유업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보조금 특혜시비를 주장하며 지자체와 공장 측의 책임성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투자 금액에 비해 그동안 남양유업 나주공장의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더 크다"며 "나주시의 투자유치가 남양유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2004년과 2011년 남양유업과 체결한 투자유치협약에 따라 남양유업 나주공장에 2015년까지 총 31억6300만원(도비 6억2800만원, 시비 25억3500만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했다.

세부지원내용에 따르면 △오피스 관로 등 기반시설 지원에 3억

8300만원(2006~2008년) △고용보조금 5억8천만원(2010, 2012, 2013년) △시설보조금 22억원(2009년, 2015년 공장증설) 등이다.

나주공장 신축과 증설에 남양유업이 투입한 예산은 1천98억원에 달한다.

남양유업은 2008년 6월 공장을 첫 가동한 이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세수 확대 등에 기여했다.

특히 현재 남양유업 나주공장 전체 근로자 300여명 중 200여명이 나주시 지역 근로자로 임금 수령에 따른 직접 소득유발효과는 연 72억원(200명*36백만 원)으로 분석된다.

담양군, '찾아가는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 개최

분야별 상품기획자 직접 방문...1대1 컨설팅 지원



담양군은 지난 23일까지 1박 2일간 전남창조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대형유통사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찾아가는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상담회는 (재)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남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 농식품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품평회를 한곳에 모여서 하지 않고 분야별 상품기획자(MD)가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홍소평분야는 GS홈쇼핑, (주)코레트리, 올벡쇼핑, 하이퍼마켓은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 온라인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협몰, 로컬푸드는 Y-MART, 오가닉마트, 백화점은 한화갤러리아 등 분야별 상품기획자 MD와 전문위원들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상품에 대한 평가와 참여기업들의 상품디자인, 생산, 품질 등에 대해 1:1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대상업체에 맞춤형 판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담양=박승경 기자

순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4203필지 찾아줘

시·군·구청서 신청

순천시에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지난달에는 순천에 거주하는 신

모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찾아보기 위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방문했다. 신모씨의 신청사항을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과거 조부 소유의 토지가 화순군에 1필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시 담당자는 신모씨에게 작고하신 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땅도 조회 가능하니 신청해 볼 것을 추천하며 안내해 아버지 소유의 땅 1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 4필지 등 총 6필지의 땅을 찾아 상속인

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로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이달 28일까지 모집

화순군이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2명으로 모집 공고

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화순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육 대상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되는 해설사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 등 신규 교육 과정, 3

개월간 진행되는 현장 실습을 마친 뒤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규 교육 희망자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체육단체들과 '군민 건강 증진' 위해 협약



곡성군이 곡성군체육회, 곡성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다짐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2층 곡성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곡성군체육회 회장, 곡성스포츠클럽 회장 등 관계자들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와 각 단체들은 군민들의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정기 및 수시 운영에 서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역체육 진흥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